

자 기 소 개 서

성장 과정	<p>고등학교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몇 차례의 권유를 거절해오던 제가 다시 가입을 고려하게 된 건 중학생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불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왔던 탓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대외 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수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본인의 감정에 집중하느라 타인의 감정을 소홀히 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통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멀어졌던 친구들과는 다시 가까워졌지만, 그 사이에 배운 소통의 방법은 지금까지도 제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p>
성격	<p>저의 장점을 표현할 한 단어를 고르라면 '끈기'를 꼽겠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곳은 빠른 속도를 중요시하는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업무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었으나 날카로운 분위기 속에서 같이 일하기 시작한 동료들이 하나 둘 그만두는 와중에도 이를 악 물고 미숙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 위해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여느 고참들과 마찬가지로 능숙하고 빠른 업무대처가 가능해졌고, 군 복무를 마치고 왔을 때는 다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제 성격의 장점입니다.</p> <p>제 단점은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자잘한 실수를 줄이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와 단계별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려는 등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p>
활동 사항	<p>대학 재학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에 능숙해지고자 배우를 지망하였고, 배역을 따내어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이라는 분야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인원이 많지 않았던 동아리에서 연극 한 편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역할뿐 아니라 기획, 조명, 음향, 무대장치까지 연극에 필요한 요소 하나하나에 자신의 역할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더 잦은 의견 충돌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이 과정을 통해 다른 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무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고, 자신이 맡은 본래의 역할을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집단이 가진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 상호간의 관심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이후 어떤 활동에서도 이 가치를 상기하며 다른 구성원과의 협동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p>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p>처음 디자인 분야를 접했을 때, 디자인은 새롭고 독창적인, 감각적이고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된 디자인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치는 사용자가 목적을 더욱 수월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도 심미성을 놓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익숙함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고, 이러한 배움이 제게는 더욱 편안하게 와 닿았습니다.</p> <p>“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격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창의력과 창조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것이라도 그 근원이 과거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창성에 침잠하기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자가 더 쉽게 접근하는, 더 아름답게 느끼는 디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실하게 탐색하고 고민하는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p>